

저탄소 학교급식 활성화 '맞손'

전북자치도교육청, 식품연구원과 협약 체결... 진로체험·식품분야 긴밀 협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7일 5층 회의실에서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백형희)과 진로체험 및 저탄소 학교급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거석 교육감과 백형희 원장은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로체험 및 식품분야에 관한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7일 5층 회의실에서 한국식품연구원과 진로체험 및 저탄소 학교급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해 더 많은 협력을 이뤄 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협약으로 학생들의 진로체험에 다양성을 기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식품 안전 교육을 통해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미래 세대의 주역인 학생들의 진로교

육을 위해 지역사회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식품연구원은 식품 분야의 연구개발, 공익가치 창출, 성과확산 및 기술지원 등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유일의 식품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장은성 기자

이에 따라 한국식품연구원은 식품 분야의 연구 및 기술과 관련해 고등학교 진로체험 및 저탄소 학교급식 활성화에 필요한 콘텐츠 개발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전북교육청은 한국식품연구원의 고등학교 진로체험 및 저탄소 학교급식 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 및 프로그램 안내 등의 역할을 맡기로 했다.

백형희 원장은 "식품 연구와 교육의 융합을 통해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전북문화관광재단과 공동으로 임실치즈테마파크 내 역사문화관에 세계지역전통주 전시관을 설치했다고 7일 밝혔다.

세계지역전통주 전시관 설치

전주대-전북문화관광재단, 임실 역사문화관에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전북문화관광재단과 공동으로 임실치즈테마파크 내 역사문화관에 세계지역전통주 전시관을 설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산업과와 임실군 관광치즈과의 협업을 요청한 100% 기증품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이는 설치미술가로 유명한 전북대박물관장 엄혁용 교수(미술학과)와 전주대 LINC3.0사업단 산하연공유·협업센터장 유경민 교수(국어교육과)의 기획으로 추진됐다.

세계화인문역할회의의 기증 사업을 발상한 사업관리 부회장(부다페스트 최귀선)은 "전북자치도의 문명사와 전통문화유산 위에 재외동포 사업가들의

아나스포라 향수가 더해져 세계적인 문화관광자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자체 전시실 확보에 앞장선 전북문화관광재단 이경운 대표이사는 "전시실을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홍보 마케팅을 정교화 해 세계인이 다시 찾고 싶은 전북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진배 총장은 "전시실 설치가 지역의 인프라 구축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교육·문화·관광 산업으로 저변이 확대되길 바란다"며 "지역과 동반 성장하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자치도교육청학생수련원 '치유 숲 산책길 캠프'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수련원(원장 강양원)은 지난 5~6일 1박 2일 일정으로 도내 초등학교 5~6학년 24가족 100명을 대상으로 제2회 치유 숲 산책길 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에서는 향기공예, 집트랙, 포레스트어드벤처, 클라이밍, 가족 운동회, 산행안전교육, 치유명상 등 다양한 체험을 실시했다. 더불어 남원백두대간전시관(에코큐브), 지리산허브밸리까지 관람을 즐겼다.

캠프에 참여한 이윤진(전주오송초 6) 가족은 "수련원이 있는 이곳이 너무 마음에 든다. 생활관, 식당 등 모든 게 너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송효린(비룡초 5) 가족은 "아이들과 즐거운 체험을 할 수 있어 좋았고, 먹는 것부터 놀거리, 볼거리 그리고 치유 명상 시간이 너무 뿌듯했다"며 "남원에 가볼 만한 곳이 많다는 걸 알게 돼 다시 가보고 싶다. 수련지도사들과 맛있는 요리를 해 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강양원 원장은 "수련원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받았는데, 접수 시작 2분 만에 75가족 250명이 신청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면서 "자녀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부모님 마음을 생각해 간식 하나까지 꼼꼼하게 골랐다. 수련원에서의 추억을 오래도록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역 고교생 대상 직무특화 단기 기업탐방

전북대 RIS대학교육혁신본부-원광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주관 원광보건고 학생 30명, 고창 상하농원서 산업 현장 경험 기회 가져

전북대학교는 7일 지역 고교생을 대상으로 직무특화 단기 기업탐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북대 RIS대학교육혁신본부와 원광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공동 주관한 이번 프로그램에 원광보건고등학교 학생 30명이 참여해 고창 상하농원에서 산업 현장을 경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탐방은 농생명·바이오 관련 산업에 대한 특강을 비롯해 직무기반 기업 교육, 팀별 실습 프로젝트 수행, 유기농 식품 생산 시스템 교육 등으로 이뤄졌다.

이번 캠프에 참여한 원광보건고 학생들은 "전공과 연계한 지역 내 기업을 직접 방문해 직무에 대해 이해하고 실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교우 RIS대학교육혁신본부장(전북대 기계설계공학부 교수)은 "대학생뿐



만 아니라 지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우수 인재의 지역 정주까지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국립군산대, 2024학년도 하계 대학생 재능봉사 캠프

국립군산대학교(총장 이장호)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2024학년도 하계 대학생 재능봉사 캠프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재능봉사 캠프사업은 대학생 멘토팀이 지역 청소년 멘티를 대상으로 학습지도,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 상담 등의 재능 나눔을 실천하는 멘토링 활동이다.

이번 재능봉사 캠프에 참여한 멘티(MDI)팀은 파랑새지역아동센터(군산시 소재)에서 진로 상담과 여름 질병 진단 체험을, KU팀은 임마누엘지역아동센터(군산시 소재)에서 과학·예술·체육과 관련된 오감 발달 활동을 진행했다.

오연풍 사회봉사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멘토와 멘티 모두 성장하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우리 대학은 지역사회와 연계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봉사활동을 지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이재훈 기자



7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2024 GROUND.N K리그 U18 챔피언십' 우승팀인 전북현대 U18 전주영생고 선수단 격려회가 열린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과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GROUND,N K리그 U-18 우승 축하"

서거석 교육감, 전주영생고 축구선수들 격려... "자랑스럽고 대견"

서거석 교육감이 올해 전국대회 2관왕에 오른 전북현대모터스FC 유스팀 전주영생고등학교 축구선수들을 격려했다.

7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2층 강당에서 '2024 GROUND,N K리그 U18 챔피언십' 우승팀인 전북현대U18전주영생고 선수단 격려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지난 7월 25일 충남 천안축구센터 주경기장에서 치러진 '2024 GROUND,N K리그 챔피언십' 결승에서 김천U18 팀을 이기고 우승을 거머쥔 전주영생고 선수와 학

교 관계자 등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주영생고는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우승에 이어 이번 대회 우승까지 전국대회 2관왕을 차지하며 축구 명문으로 우뚝 섰다.

서거석 교육감은 "고교 축구 대회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축구 명문으로 우뚝 선 여러분이 매우 자랑스럽고 대견하다"면서 "소중한 자녀들을 항상 응원하고 지지해 준 학부모님과 축구선수 육성을 위해 힘쓰고 있는 교장선생님 등 학교 관계자들에게도 감사드린

다"고 말했다.

이어 "전주영생고의 이번 우승이 도내 축구 꿈나무들에게 밝은 미래와 희망을 보여줬다"면서 "전북교육청은 학생선수들의 훈련 여건을 개선하고 실력향상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대회 우승으로 전주영생고는 △최우수 지도자상(이광현 감독, 하성우 코치), △최우수 선수상(이수로), △공격장(김주영), △베스트 플레이어상(박현민) 등 개인 수상의 영예도 함께 안았다. /장은성 기자

2025학년도 공립 유·초·중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 예고

전북자치도교육청, 유초등 177명·중등 319명 선발 예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7일 누리집(www.jbe.go.kr)을 통해 2025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실시에 대한 사전 예고를 했다.

이에 따르면 유·초등 교사의 경우 유치원 54명(장애 4명), 초등 111명(장애 9명), 특수유치원 2명(장애 0명), 특수초등 10명(장애 1명) 등 총 177명이다. 이는 전년도 77명보다 100명 증가했다.

이어 중등 교사는 국어 19명, 영어 23명, 수학 25명, 체육 23명, 특수(중등) 17명, 보건 29명, 영양 13명, 사서 5명, 전문상담 19명 등 30개 과목에 모두 319명이다. 전년도 402명보다 83명이 감소했다.

보건의 경우 유치원(10명), 초등(14명), 중등(5명)으로 구분 선발하며, 최종 합격자는 각각 구분별 학교급에 배치될 예정이다.

사전 예고 인원은 각 분야별로 정원 증감 요인과 퇴직, 휴·복직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실제 선발 규모와 일치

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응시자들은 추후 '2025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유·초등 및 중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계획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유·초등 교사는 9월 11일, 중등 교사는 10월 2일 각각 공고된다.

응시원서 접수는 유·초등 교사는 9월 30일~10월 4일, 중등 교사는 10월 14~18일 온라인교직원채용시스템(https://edurecruit.jbe.go.kr)에서 하면 된다.

한편 1차 시험은 유·초등 교사는 11월 9일, 중등 교사는 11월 23일 치러질 예정이다.

아울러, 2025학년도부터 달라지는 체육 실기평가 종목에 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응시자들은 착오가 없도록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www.jbe.go.kr) 알림 마당-시험/채용/구직 - 초·중등임용시험 또는 중등임용시험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 직장교육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지난 6일 오후 2시 JENU 인터내셔널센터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에 주제로 직장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방어 장비 강화 및 차세대 정보화 시스템 구축 등 재방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기획했다. 특히 정보보호 담당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관련 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교육에는 개인정보 보호 전문 강사이자 가명정보 전문가인 정환석 농촌진흥청 전산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실천사항과 관리 등 다양한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전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의 실제 사례와 대응 방안,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령, 최근 사이버 공격 동향과 사례, 개인정보 유출 시 대응 방안 등 정보 보안과 관련된 핵심적인 이야기를 전했다.

정환석 강사는 "개인정보가 한번 유출되면 완전히 삭제할 수 없고, 그 피해 속도와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며 "모든 취급자가 철저히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하고, 이미 발생한 피해에 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양오봉 총장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전북대 가족들이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기에 대비한 방어 장비를 강화하고, 차세대 정보화 시스템도 발빠르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 보안에 대한 구성원 교육도 강화해 이번에 드러난 빈틈을 완벽히 메워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학교운동부 지도자 청렴도 높인다

전북자치도교육청, 150여명 대상 직무교육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6일 전주비전대학교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청렴의식과 지도 역량을 강화해 우수선수를 육성하고, 나아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인성함양과 반부패·청렴도를 높여 더 투명한 학교운동부를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종열 감사관이 '부패 제로화를 위한 청렴 강화 교육'을 주제로 청렴교육을 진행하고, 서거석 교육감의 특강도 이어졌다.



예방교육,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 등을 담은 교재를 배부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운동부 지도자의 적극적인 인식 전환과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민주적인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